

# 민주당 친노성향 진보인사, 국민의당 중립성향 호남출신 선호

## 국회 추천 총리 누가 거론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교수의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차기 총리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야권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면 호남과 진보를 고리로 국회 추천 총리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추천 총리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사는 일단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총리 후보로 제안하기도 했고, 국민의당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두 인사 모두 강한 개헌파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에 회의적인 문 전 대표와 충돌할 수 있다. 또 문 전 대표와의 과거 악연도 만만치 않다. 두 사람은 형식적 총리가 아닌 전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날 시국회동을 가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의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진박(진박근혜)계에서는 이인제·한화갑·강봉선 전 의원과 진남권 부총리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동교동계 인사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을 총리 후보군으로 접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인·손학규 여야 모두 부담

민주당 남재희·박승·안경환

여권 김황식·이인제 등 거론

박지원 "이정현, 동교동계 접촉"

2野 입장차 합의 쉽지 않을 듯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가 아직 현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 누구누구를 총리 후보자로 접촉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 추천 총리 제의 정해지까지는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야권의 2대 주주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이 차기 총리 지명을 가르는 향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친노·친문계와 가까운 진보적 인사를, 국민의당은 야권 성향이면서도 중립적인 호남 출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호남 출신이면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인 야권 출신 후보가 대두된다면 의외로 인선 방식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총리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총리 인선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볼 것으로 보여 자칫 야권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박 대통령 등 여권이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던진 것도 이러한 노림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준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며 "야권이 정권을 차지 못한다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정국은 오히려 혼란을 거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권? 내치? 명확한 언급 없어...총리 권한 놓고 '3당 3색'

민주당 "외치까지 통할해야" 새누리 "대통령 고유 권한 유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내각을 통할토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거국중립내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책임총리제'는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각을 통할할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가. 이는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다.

명실상부하게 거국중립내각으로 가려면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향후 내각 구성과정에서도 여야와 상의를 하면서 장관 후보를 정해야 하고, 대

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 책임 총리는 내각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 정도 유지된다.

민주당은 여야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내치는 물론 외치를 관장하며 국정의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잔여 임기의 '명맥'만 유지하는 가운데 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의 추천 총리로 하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은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외치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외치 관련한 권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하야하는 것이며,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책임 총리가 국무위원 제정권과 해임요구권을 행사하고 경제·사회 관련 부처의 내치(內治)를 통할하는 대신 대외적인 역할은 대통령이 맡는 방식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다만, 이 역시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총리 추천 협상에 돌입하면 총리의 권한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병준, 8일만에 날아간 책임총리 꿈

박 대통령 사실상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내정한 지 8일 만에 8일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 추천해줄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사실상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지난 2일이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를 내세웠다. 이튿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내정자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사회 정책 중심으로 사실상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까지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김 내정자를 지명

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명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여론이 더 나빠지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대표들과 회담을 제안했다. 또 한광욱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면담을 아예 거부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전격 방문,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김병준 카드'는 사실상 철회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자진사퇴는 하지 않는다"면서 "저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여야가 새로운 총리에 빨리 합의를 해서 제가 사라지게 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 대통령 전격 국회 방문 전날밤 사전조율 정세균 의장 "야당대표 먼저..." 처음엔 거절

박근혜 대통령의 8일 전격적인 국회 방문은 전날 저녁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간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여야 지도부를 만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비서실장은 저녁에

별도로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를 가시겠다고 한다"며 정 의장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이 "야당대표들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중히 거절했으나 한 실장이 국회 방문 의사를 굽히지 않자 정 의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정 의장 측은 전했다.

한 실장이 정 의장 측에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의

사를 밝힌 시점을 전후해서 청와대에서는 정 의장과 의정단체에서 내용을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사전에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다. 그는 청와대의 공식발표에 앞서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실 통보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10시30분 의장실로 오셔서 의정단체를 방문하신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국회의장실 통보로 박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통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통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베트남/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베트남/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통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통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관광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옵션 중식 불포함)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사항 : 항공 및 선박 운임(연료/전세)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리 가입업체 ※역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항공비(연료,기차/기타/의사료,선박료,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